

高等教育과 卓越性

李 鉉 清
(釜山大 教育學科)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개 保守的 高等教育觀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 문제는 국가 발전과 경제 개발 측면을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高等教育에서의 卓越性은 지도적 시민의 양성과 국가 발전 및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대학이 社會的으로 제 機能을 발휘하고, 保守뿐만 아니라 進步的 教育觀을 모두 수용하는 完全한 機能的 組織體가 될 때에 提高될 수 있다.

1. 序 言

高等教育에서 卓越性(excellence)의 문제는 고등교육 체제, 고등교육의 사회적 의미, 그리고 多樣한 目的은 물론 高等教育의 環境的 要因 등을 포괄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1980년 후반부터 世界의 여러 나라는 교육에서의 탁월성을 추구하려는 목적 아래 教育改革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高等教育에서의 秀越性을 중요한 課題로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에서의 秀越性의 개념은 교육의 自律性(autonomy), 교육의 社會的 資務性(accountability)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으

며 지역 사회로서의 대학이 지니는 여러 特性들을 포괄하는 뜻이다. 따라서 高等教育에서의 秀越性이나 탁월성을 논의할 때는 학문 프로그램의 본질, 사실적 지식(factual knowledge)의 전수 여부, 실질적 기술의 교수, 그리고 변화와 자유의 의미까지를 포함한다.

이 점에서 대학에서의 탁월성 개념은 대학의 기능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된다. 大學의 機能에 대한 논의도 인격 형성과 잘 함양된 인간(well-rounded person)을 전제로 하는 傳統的 敎養教育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적 훈련을 강조하는 知識變換으로 구분되고 있으나¹⁾, 탁월성은 교양교육과 실질적 직업교육의 조화된 기능을

1) Millett, John 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University of the United States*(New York: McGraw Hill), 1973, p.39.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은 학생 수나 학교 규모와 관련된 '숫자 놀음(body-count game)'이 아니라²⁾ 연구의 기능과 봉사의 기능, 그리고 효율적인 大學體制와 관련되어 있다.

2. 効率的 高等教育과 卓越性

흔히 탁월성을 논할 때 '좋은 大學'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좋은 大學(good university)' 개념은 '효율적인 대학(effective university)'과 다르다. 따라서 고등교육에서 탁월성의 개념은 효율적인 대학의 기능을 의미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학의 특성을 지닐 때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을 추구하는 대학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대학이라 인정되는 대학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 ① 지식 확대의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
- ② 확대된 지역 사회에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대학
- ③ 구조와 역할이 분명한 대학
- ④ 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교육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대학
- 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대학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大學은 탁월성을 具現하는 大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을 논할 때, 사회적 요구와 개인의 요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화시키며 역할을 분명히 하느냐와도 관련시켜 볼 수 있다.

Harman(1989)은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은 학문 연구 조직체로서의 대학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건전한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³⁾ 문화적으로 건전하다는 의미는 문화적 체계로서 그리

고 상징적 체계로서의 대학이 규범적으로나 관료적 특성에서 건전한 전문적 조직으로서의 대학 구성원들이 전문적 규범(professional norms)을 지닌다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문화적 관점은 지식과 전문성에 기초한 최대한의 자율성과 비위계적 통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은 대학 문화의 탁월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견해는 Clark(1989)와 Becher(1984) 등의 大學組織文化論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과 관련한 또 다른 접근은 고등교육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때에만 탁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 1960년대의 發展教育論의 입장에서 기인된 것이다. 발전교육론적 탁월성은 고등교육의 사회적 기능 중에서도 분배와 선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高等教育의 탁월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때의 탁월성의 개념은 국가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人力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경제 성장과 교육의 역할을 연구한 위원회의 보고서들 보면,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에 대한 개념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⁴⁾

- ① 경제 성장과 직결된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 ② 보다 창조적이고 확충된 산·학 협동 체계의 확립
- ③ 효율적인 학문 체계와 프로그램
- ④ 우수한 교수의 확보
- ⑤ 집중적인 교육 경험과 보다 생산적인 교육 경험
- ⑥ 효율적인 교수와 효율적인 체제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 ⑦ 교육 지도력의 신장과 효율성 제고
- ⑧ 학생에 대한 봉사 기능의 강화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의 고등교육의 탁월성은 전적으로 人力啓發과 人力培養 차원에서의 개

2) Ashworth, Kenneth, *American Higher Education in Decline*, College Station: Texas A & M University press, 1979, p.53.

3) Kay M. Harman, "Culture and Conflict in Academic Organization: Symbolic Aspects of University Worlds",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7:3, 1989, pp.30~39.

4) Task Force on Education for Economic Growth, *Action for Excellence* (Washington D.C.: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1986), pp.2~11.

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탁월성은 經濟的 發達에만 연계된 개념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社會體制로서의 高等教育機關이 지니는 기능의 극대화와 관련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탁월성은 고등교육 체제가 지니는 體制의 탁월성과 그 기능의 탁월성을 포함한 의미이다. 전국 고등교육의 탁월성은 總體的 觀點(whole-university approach)에서 논의될 과제이다.

고등교육에서 탁월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체제의 정비를 전제로 하며, 고등교육 체제와 관련된 지원 체제와의 효율적인 機能的 연대를 전제로 한다. 고등교육의 탁월성은 고등교육 기관이 사회에 터한 사회 체제라는 점에서 체제 자체의 조직적 효율성과 사회적 기능의 충분한 역할 수행을 의미한다.

특히 고등교육 체제는 기능의 분화와 역할이 확연히 정립되어 있을 때에만 탁월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역 혹은 한 사회에서의 大學의 位相에 따라서 탁월성의 개념은 달라질 수 있다.

근자에 들어 교육 개혁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의 탁월성'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世界的인 동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美國의 경우를 빌어 탁월성 추구를 위한 대책을 살펴 보려고 한다.

미국의 효율적 학교 운동(effective schooling movement)은 초·중등교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수월성 추구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 점에서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 추구는 곧 국가 발전과 사회적 진보와 직결된다는 주장이며, 대학의 기능이 충분히 수행될 수 있을 때 고등교육에서의 수월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경향이다. 일반적으로 탁월성 추구하고 관련한 수 많은 연구들은 대개 대학을 '효율적인 대학'과 '비효율적인 대학'의 개념으로 구분짓고 있는데⁵⁾, 효율적인 대학은 학생들의 배경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최대한의 학문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대

학을 의미하고 있다. 이 때의 최대한의 학문적 능력이란 기초 학문과 직업 능력의 극대화를 뜻한다. Edwards(1983), Lezotte(1985), 그리고 Brookover(1984) 등이 제안하고 있는 효율적인 교육 기관의 특성은 ① 안정되고 질서 정연한 교육 환경, ② 분명한 학교의 업무, ③ 교수적 지도력(instructional leadership), ④ 높은 기대 수준, ⑤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학생들의 학습 과업에 대한 책임감, ⑥ 학생 발달과 학업 신장에 관한 정규적 검증, ⑦ 건전한 학교-가정 관계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⁶⁾

그리고 효율적인 대학, 즉 탁월성을 추구하고 있는 대학의 기능 증진을 위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룹은 고등교육 기관을 관장하는 행정 부서는 물론 대학 총장, 교수, 학생, 그리고 지역 사회 교육 관련자 모두라고 지적하고 있다.

3. 高等教育의 卓越性和 韓國의 大學

우리나라 대학은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립적 개념 내지 보완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 때문에 탁월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특히 고등교육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질 저하는 국가나 사회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 추구는 심하게 받아 들여져야 할 과제이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한국 대학에서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대개 탁월성은 앞서 논의한 바대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때 그리고 고등교육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협력하고 개혁 의지를 가질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社會的 意味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位相과 役割이 새로운 차원에서 定立될 필요가 있다.

5) Mid-Atlantic Consortium for Education, *A Guide for Effective Schools* (Virginia: University of Virginia), 1986, pp.1~11.

6) Lezotte, Lawrence, "The Great School Reform Hoax", *Esquire*, April, 1985, pp.47~56.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탁월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총체적 대학 또는 완벽한 대학(full university)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총체적 대학 또는 완벽한 대학의 개념은 연구 시설, 교육 프로그램, 지원 체제, 그리고 大學院과 專門敎育大學院의 기능이 완벽하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러한 총체적 접근과 補充 내지 改善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은 해결될 수 없다.

둘째는 대학 조직 체제의 효율적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학 조직 체제란 앞서도 언급된 바대로 社會體制로서의 大學組織體系를 의미하기 때문에 폐쇄 체제로서의 대학 기구를 뜻하지 않는다. 대학 체제는 완전한 개방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는 '단인을 위한 대학 체제(university for all)'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흔히 대학 체제가 自律性이 전제되지 않고 특정 사회 구성원 집단의 조직체로서의 閉鎖性이 존재한다면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탁월성 추구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Sanders(1973)가 조직체로서의 대학은 지역 사회로서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듯이 대학 사회(university community)의 특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대학의 문화가 반지성적 문화에서 탈피하여 知性的 대학 문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大學文化가 반지성적일 때 大學文化는 현세 지향적 이질 문화와 청년기 저항 문화의 兩極化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은 대학 문화의 탁월성을 그 전제로 한다. 진정한 大學文化의 不在現象은 곧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 추구의 不在를 의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문화는 비단 학생들만의 문화는 아니다. 그것은 교수, 대학 행정가, 대학 관련 인사, 그리고 학생들이 공유하는 大學人의 문화이므로 올바른 대학 문화와 문화 체제의 확립은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 추구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넷째는 고등교육 체제의 役割 定立과 지원 체제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등교육 체제는 그 類型에 있어서 한 국가나 사회가 바라는 대학 기능의 차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에서의 유형은 곧 사회적 기능 부여를 의

미하며 사회적 기능에 따른 역할 수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大學이 유형에 따라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여러 유형의 대학이 기능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 그리고 특성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면 그러한 사회에서는 고등교육의 탁월성이 인식될 수 없다. 대개 고등교육 기관의 유형 정립은 설립 시기, 지역이나 커리큘럼 그리고 대학 규모 등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의의를 부여받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여받은 사회적 의의에 대한 기능 수행이 전제될 때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 추구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고등교육 체제는 사회와 이완된 島嶼 개념(island concept)으로는 인식될 수 없는 사회 체제이다. 따라서 고등교육 체제는 사회에 존속하는 다른 機關들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점은 지원 체제와의 협력 체제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정립되고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지원 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대학교육의 탁월성 추구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는 대학교육의 내적 충실과 아울러 사회적 욕구 충족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의 內的 充實은 유용한 지식(useful knowledge)의 유용한 활용을 전제하는 의미로서 단순한 學力의 伸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을 위시한 많은 國家들이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 문제를 새삼 문제삼고 있는 것은 學力의 저하 때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유용한 지식의 사회적 적용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이 제대로 고급 인력의 배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 변동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에서도 사회적 요구와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때 교육에서의 탁월성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게 된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커리큘럼의 재정비, 유사·중복 학문 영역의 재조정, 교육 시설과 그 활용의 효율적 조정, 교수의 자질 향상, 그리고 사회적 욕구와 미래지향적 교육의 운영 등을 전제로 한 內實이 기해져야 한다.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은 대학만의 개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대학과 대학 사회, 그리고 大學의 支援體制가 모두 상호 협력할 때 가능한 과제이다.

4. 結 言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 문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과제가 되고 있으며 주로 '기능하는 대학(functional university)'이나 '효율적인 대학(effective university)'의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도 논의된 바대로 탁월성의 개념은 사회적 욕구와 개인의 신장이 조화된 효율적인 교육 기능을 의미하며 전 대학 사회의 총체적 노력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전 대학 사회란 유형별 대학의 기능을 전제로 할 때, 대학 자체의 탁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대학 지원 체제의 제도적 補完·強化를 통한 총체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탁월성은 평균을 상회하는 상위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주어진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능적 탁월성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은 사회와 이완된 개념이 될 수 없으므로 고등교육 체제가 터한 사회에서 대학이 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뜻한다. 이때 사회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의 특성이 무엇이며, 機能的 결함은 무엇인지를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의 사회적 기능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지도자적 자질과 公民性을 신장시키는 知的 혹은 '指導的 社會化'의 기능과 社會에서 기능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배양하는 選拔과 分配의 기능, 그리고 사회 진보와 개혁을 주도하는 創造와 改革을 주요 기능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지도적 시민을 양성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의 개혁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대학이 사회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고등교육이 思念的·理想的 지식과 유용하지 않은 지식 전달에 급급할 때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은 문제가

된다.

고등교육의 意味나 사회적 位相에 대해 논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수적 고등교육관과 진보적 고등교육관으로 대별하고 있다. 이때 進歩的 高等教育觀은 대학이 한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기능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사회적 개혁과 혁신을 중요시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고등교육관은 대개 급격한 기술 변화나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보다는 사회 전체의 집단 의식화를 통한 비판적 사고와 이상적 사회의 건설을 대학의 주요 기능으로 인식하는 접근이다. 이와는 달리 보수적 기능주의자들은 대개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치중하여 대학의 주요 기능을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력 배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개 保守的 高等教育觀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 문제는 국가 발전과 경제 개발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탁월성 문제는 보수적 교육관과 진보적 교육관을 모두 수용하는 의미가 기 때문에 고등교육 기관이 完全한 機能的 組織體가 될 때 그리고 사회에서 이를 인식할 때 해결될 수 있다 하겠다.

특히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을 논의할 때 활용되는 개념들로서는 '효율적인 대학', '기능적인 대학', '미래지향적인 대학' 그리고 '선도하는 대학' 등인데 이러한 개념 속에는 개혁·진보·참신함, 그리고 배양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등교육에서의 탁월성을 논의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또 다른 경향은 고등교육의 체제와 기능을 보완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의 고등교육 強化論的 경향과 고등교육 無用論을 주장하는 脫고등교육론(de-higher education)적 접근이 있다는 점이다. 이때 고등교육 무용론적인 입장은 고등교육의 역할 정립, 즉 기술 산업 교육과 기초 교육이 구분되지 않을 때 고등교육은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⁷⁾ 따라서 고등교육의 탁월성은 역할 정립과 기능의 명료화, 그리고 지원 체제를 위시한 대학 사회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

7) F. Fine,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Educational Records* (U.S.C. Press, 1989), pp.3~8.